

# 11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과장

## “생산증가로 인해 월중내내 약세권 벗어나기 힘들듯”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게 불변의 진리라지만 성수기 추석을 맞아 오른 계란값은 추석 이후 큰폭의 하락이 있는 뒤 좀처럼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순리로 봐야할지 이번으로 봐야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노계값까지 폭락하여 출하할려도 가격이 맞지않고 출하도 쉽지 않은 편으로 이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겨울속의 봄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고 찾아오리라 기대해볼 뿐이다.

□병아리 입식증가가 우려된다. 9월 초생추사료 생산량이 5,420%으로 88,89년 동월에 비해 각각 69%, 33% 증가했다. 육추사료 또한 96%,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산란성계수수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산란사료는 124,821%으로 전월에 비해 12.4% 늘어났고 88,89년에 비해서는 0.1%감소, 4.4% 증가했다. 산란중계입식은 26,300수가 입식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실용계 병아리 입식추세는 8월에 비해 5% 감소했고 전년동기간에 비해서는 8%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금년도 입추패턴이 봄, 가을 입추시즌이 없이 꾸준히 병아리 입식이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 오히려 시즌중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병아리값을 무시한 입추경향은 상당히 불만스런 느낌도 든다.

□추석 이후 계란값 폭락을 가져왔지만 단순가격으로 보아 불황이라든지 채란농가가 어렵게 느껴지는 않을 정도로 계란값이 아직 호황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줄지 않고 있어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환우하기에는 계란값이 높은 편이고 도태할려니 노계값이 폭락하여 쉽사리 출하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시기로 보여진다. 더불어 금년 봄 입추 이후 병아리 입식이 계속 증가하여 초산계에서의 계란생산까지 가세하여 11월중에도 계란값 회복은 힘들게 보여진다. 소비증가보다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노계출하 내지 환우로 인한 생산감소가 절실히 요구된다.

※ 종계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

(단위 : 천수)

구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종 계 입식수수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67.5	45.3	40.6	33.2	499.9
	90	29.2	41.9	32.6	20.1	38.3	92.8	27.8	42.8	26.3				
실용계	88	1,742	2,205	2,428	2,365	1,790	1,283	1,335	1,420	1,695	1,743	1,402	1,185	20,593
	89	1,355	2,569	2,683	2,420	2,562	2,352	1,925	2,237	2,197	1,959	1,806	1,904	25,969
	90	1,970	1,959	2,302	2,117	2,229	2,229	2,405	2,127	2,026				

그림 1. 대란출하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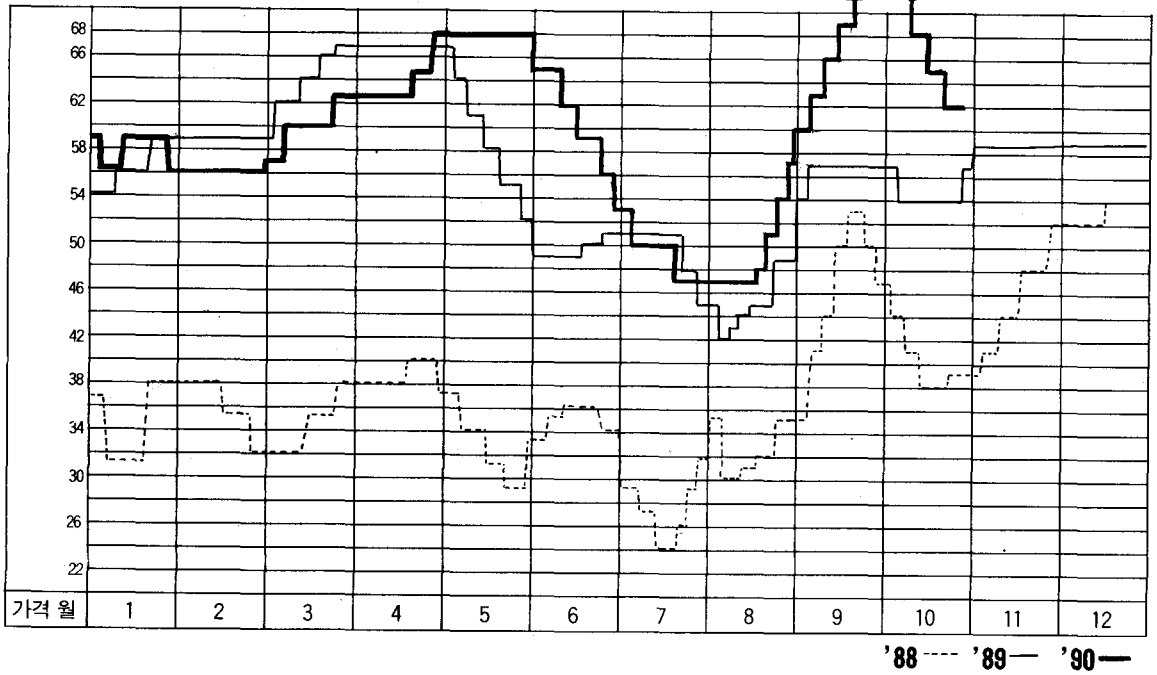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